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호칭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

A Contrastive Linguistic Study of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Subtitles

이윤옥 (Yoonok Lee) *

ABSTRACT: This paper is the continuation of research by Lee（2022）, and is a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of the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Korean terms chosen to correspond with them in the subtitles. Terms of address include many elements, and through them we can not only see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but we also can apprehend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speaker with regards to the listener. The terms of address used in film lines not only expr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the film, but also have the function of conveying narrative information. Considering this, we can see that it is important to translate such terms of address in subtitles. In this paper I follow the categorization of terms of address previously laid out in earlier research and analyzed the terms of address that appear in Japanese film lines and the terms applied to Korean subtitles. From the results I conclude with a confirmation that there is a limit to what can be translated in subtitles due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both Japanese and Korean.

KEYWORDS: terms of address, subtitle translation, Japanese lines, Korean subtitle

1. 들어가기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음성 기호(voice symbols)로 정의되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그 사회에서 운용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말을 평면적인 통반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대건축물과 같다는 비유 표현이 성립되는 것도 말의 배후에 있는 사회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 Professor of Cognitive Linguistics,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 leigh@intl.kindai.ac.jp

Lee, Y. (2023). A Contrastive Linguistic Study of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Subtitl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8,* 1-23.
©2023 Yoonok Lee

때문일 것이다. 일상의 대인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호칭어(terms of address) 역시 단순한 결집체가 아니다.

호칭어는 화자가 청자를 일컫는 표현인 동시에 화자가 어떤 특정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호칭어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호간에 서로를 어떤 호칭어로 부르느냐에 따라 서로의 개인적・사회적 관계는 물론,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와 그 호칭어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1]. 먼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호칭어의 기능과 유형 등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호칭어 유형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 자료에서 추출한 호칭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어 대사의 호칭어와 그에 대한 한국어 자막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포함한 호칭어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한일 양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자료가 되고 한일 영상번역의 실무에도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 선행 연구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2]가 어떤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이윤옥(2020)・(2021)・(2022)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2] 이 용어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東出朋(2019:104)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呼びかけ語は、基本的にはヒト名詞である。日本語のヒト名詞で一際興味深いのは、「わたし」「おれ」「あなた」「おまえ」など、多数のバリエーションを持つ「人称代名詞」である。「一/二/三人称」と「自/対/他称」、また、「呼称」「呼びかけ語」「対称詞」という、類似した対象を意味する用語も用いられている。対称詞に関しては「呼びかけ用法/言及用法」という語も用いられる。このような用語の乱立にともなって、「呼びかけ語」の明示的な定義は、管見の限り存在していない。(부름어는 기본적으로는 인명사이다. 일본어의 인명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watashi’ ‘ore’ ‘anata’ ‘omae’ 등 다수의 바리에이션을 가지는 ‘인칭대명사’이다. ‘1/2/3 인칭’과 ‘자/대/타칭’ 그리고 ‘호칭’ ‘호칭어’ ‘대칭사’라는 유사한 대상을 의미하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대칭사에 관해서는 ‘부름용법/언급용법’이라는 말도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가 난립함에 따라 ‘부름어’의 명시적 정의는 관견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호칭어의 명칭이 (1)에서는 ‘호격’ (2)에서는 ‘yobikake 문 (필자는 부름어로 썼음)’ (3)에서는 ‘호칭’ (4)에서는 ‘대칭사’로 각각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통사적이나 문법적인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호칭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1. 일본어의 호칭어

일본어 호칭어 연구의 효시가 山田孝雄(1908) 임을 李紫娟(2012)으로 알 수 있다. 또한 李紫娟(2012)는 山田孝雄(1908・1936)를 빌어 일본어 호격[3]의 문법적 성분과 정의에 대해 다음 (1)과 같이 제시하였다.

(1) 山田（1908・1936）は最も早い段階で日本語の呼格を取り扱った研究である。そこで、山田（1908:806）は、日本語の呼格について「呼格とは文中にありて他の語の何等の形式的関係なしに立てるものをいふ。これを呼格と称するはその対象又は対者を呼びかけて指定するによりてなり。」と述べている。（야마다(1908・1936)는 가장 빠른 시기에 일본어의 호격을 다룬 연구이다. 山田(1908:806)는 일본어 호격에 대해 '호격이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하등의 형식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호격이라 칭하는 것은 그 대상 또는 대상자를 불러 지정하기 때문이다'[4]라고 논하였다.）

— 李紫娟（2012:185）

호격은 문법적으로 '문장 안에서 독립적'이며, 기능적으로는 '부르고 대답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한편 笹井香(2015)는 호칭어의 기능을 다음 (2)로 정의하고 있다.

(2) 呼び掛け文の機能は、呼び掛けた対象に働きかけ、その注意を喚起することである。そのため、その言語場には、呼び掛けた対象が聞き手として存在している。（中略）呼び掛け文として適用される名詞は、呼び掛けた対象の注意を喚起しう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それが発話される言語場においては、話し手から見た関係性において、特定の個人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特徴を持っている。

（부름어[5]의 기능은 부르는 대상에게 작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어장[6]에는 부르는 대상이 청자로서 존재한다. (중략) 부름어로서 적용되는 명사는 부르는 대상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발화되는 언어장에서는 화자가 본 관계성에서

[3] 일본어에서 호격은 '～や[ya]・～よ[yo]' 등으로 실현되나 구어에서는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아/야'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본고의 인용문에 대한 (한국어 대역) 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5] 직역을 하면 호소문이 되겠지만 문맥에 맞추어 부름어 (呼びかけ語) 로 의역하였다.
[6] 언어가 행해지는 장소, 즉 linguistic field 를 말한다.

특정의 개인을 지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笹井香（2015:17）

즉 화자에 의한 부름이 청자에게 작용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그 언어장에는 화자와 청자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林炫情(2003)에서도 호칭어의 기능을 다음 (3)과 같이 제시하였다.

(3) 一般に呼称には、次のような機能がある。その一つは、発話文中で語られていることが、自己についてか、相手についてか、または第三者についてかを指示する働きである。また、それが呼格的位置で用いられるときには、相互交渉場面で、相手を引き込むための注意喚起機能を持つ。

(일반적으로 호칭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발화문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또는 제 3 자에 대해서인지를 지시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호격 위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상 장면에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주의 환기 기능을 가진다.)

— 林炫情（2003:20）

林炫情(2003)에서 정의하는 호칭의 기능은, 자기와 상대방, 그리고 제삼자를 지시하는 작용과 상대에 대한 주의 환기이다. 그러면서 호칭은 각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이나 연령, 친소관계 등의 대인적 요인이나 공식・비공식 등과 같은 장면적 요인 등에 의해 부르는 방법과 불리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鈴木孝夫(2021)는 우리가 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할 때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호칭어에 대한 정의와 용법을 다음 (4)와 같이 제시하였다.

(4) 対称詞とは話の相手に言及する言葉の総称であるが、これにはやや性質の異なった二種の用法が含まれる。第一は呼格的用法（vocative use）と呼ばれるもので、相手の注意を引きたいときや相手に感情的に訴えたい場合などに用いられる。（中略）第二のタイプは、欧米の一部の人類学者によって代名詞的用法(pronominal use)と呼ばれているもので、ある文の主語または目的語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ことばだが、内容的には相手を指している場合をいう。

(대칭사[7]는 대화의 상대를 언급하는 말의 총칭이다. 여기에는 성질이 약간 다른 두 종류의 용법이 포함된다. 첫째는 호격적 용법(vocative use)이라 불리는 것으로, 상대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나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경우 등에 사용된다. (중략) 둘째 유형은 구미의 일부 인류학자들에 의해 대명사적 용법(pronominal use)이라 불리는 것으로, 어떤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대를 가리키는 경우를 말한다.)

— 鈴木孝夫 (2021:146)

호칭어란 화자의 상대, 즉 청자를 가리키는 말의 총칭이며, 용법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호격적 용법이고, 또 하나는 대명사적 용법이다.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호격적 용법이고, 어떤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된 말이 내용적으로 상대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대명사적 용법이다.

2.2. 한국어의 호칭어

호칭어에 대해 사전에서는 다음 (5)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5) 호칭어에는 두 갈래가 있어서, 엄격하게 구별하면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명호(名號)를 칭호(稱號, 또는 指稱語)라 하고,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부름말을 호칭(呼稱, 또는 呼稱語)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쓰이기도 하고 겸해서 쓰이기도 하며, 칭호만 있고 호칭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칭이라는 말은 호칭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아우르고 있으며, 호칭어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법과 사람을 부르는 용법이 있는데, 이 둘은 따로 쓰이기도 하고 함께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왕한석(2005)은 Braun(1988:7) 등을 빌어 다음 (6)과 같이 제시하였다.

(6) 호칭 또는 호칭어(terms of address 또는 forms of address)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words), '어구' (phrases), 또는 '표현들' (expressions)을 일반적으로

[7] 鈴木(1973)의 対称詞(대칭사)는 한국어 호칭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의미한다.

— 왕한석 (2005:17)

즉 호칭어란 '화자가 대화 중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하면서 '화자가 대화 중에 가리켜 일컫는 대상을 지시하는 지칭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춘섭(2010)은 현대국어의 호칭어에 대해 다음 (7)과 같이 정의하였다.

(7) 호칭어는 비교적 단순한 언어 표현이지만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언어 공동체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social interaction)의 핵심적 구성 성분으로 기능한다. 흔히 사용하는 개인의 이름이나 2 인칭 대명사, 친족어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 손춘섭 (2010:96)

호칭어는 사회적 관계가 언어적으로 명시되는 수단의 하나로, 언어 공동체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의 핵심적 구성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 (1)-(7)에서 (6)을 제외하면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는 대화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대화에서 자신과 상대방 또는 제 3 자를 가리키는 말인 지칭어를 포함하는 개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학적 범주가 호격(vocative case)인 점에서도 일치한다. 호격은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는 독립적이어서 독립 성분으로 분류되며 호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2.3. 호칭어의 유형

선행연구에서 호칭어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본고에서도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3.1. 일본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

東出朋(2019)는 호칭어에 해당하는 표현을 열거한 세 연구를 들어 어휘 관점에서 호칭어를 분류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호칭어의 의미 분류

今村 (1996)	① 대명사: anata(あなた)　kimi(きみ)　omae(おまえ) ② 동사: oide(おいで)　koi(こい)　irasshai(いらっしゃい) ③ 명사 a) 개인명 b) 친족용어명 c) 경칭: san(さん)　sama(さま)　kun(くん)　chan(ちゃん) d) 칭호 e) 직업명 f) 애칭 g)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otonarisan(お隣さん)　선배(先輩)
日向 (1983)	a) 인칭대명사 b) 이름 c) 친족호칭 d) 직위명칭 e) 직업명칭 등
田窪 (1997)	a) 고유명사: jiro(次郎) jiro-san(次郎さん)　tanaka-kun(田中君) b) 친족명칭: 아버지(お父さん) 형/오빠(お兄さん) c) 직위를 나타내는 말: 과장(課長) d) 인칭명사:　anata(あなた)　kimi(君) omae(おまえ) e) 임시적 기술: 거기 노란모자 쓴 사람(そこの黄色の帽子の人)

— 東出朋(2019:113)

<표 1> 의 공통분모로 제시한 유형은 고유명사・친족명칭・직업명사・지위명사・대칭인칭사였다. 본고에서는 田窪(1997)를 빌어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에 접목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2.3.2.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

陳京愛(2016)에 의한 호칭어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호칭어의 유형 분류

대명사 유형	1인칭	나, 저, 우리 등
	2인칭	너, 저희, 당신 등
	3인칭	그, 그녀, 자기 등
이름 유형	성명, 성, 이름, 애칭 등	
직업 유형	직위, 직책 등	
친족 유형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호칭	
통칭 유형	기타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어휘로 지시대명사를 포함하며,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회피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회피 유형	호칭을 피하여 부르거나 가리키는 호칭으로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통칭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일본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에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를 접목시켜 보면, '고유 명사≒이름 유형' '친족 명칭≒친족 유형' '직업・직위 명사 ≒직업 유형' '대칭인칭사≒대명사 유형'이 된다. 한국어의 통칭 유형과 회피 유형은 <표 1>의 공통분모에 들어가지 않은 田窪(1997)의 '임시적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표 2>에 준하여 분석할 것이다.

3. 호칭어의 분석 및 고찰

윤미선(2021)은 영화 대사에서 담당하는 호칭어의 역할을 Sarah Kozloff(2000:35-37)와 Pavesi(2008:80)를 빌어 다음 (8)과 같이 제시하였다.

> (8) 영화 대사에서 호칭어는 다양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인물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호칭어의 역할이 단순히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호칭어는 극중의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서사적인 정보까지 전달하는 서사적 압축(narrative condensation)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 — 윤미선(2021:9)

영화 대사에 사용되는 호칭어는 관객들에게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등장인물에 의한 사건의 진행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정보까지도 전달한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선행연구로 김홍매 외(2002)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 (9)와 같이 제시하였다.

(9) 호칭어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교육, 거주지, 문화수준, 상하 관계 및 친소 관계 등이 함축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이 바로 호칭어이다.
— 김홍매 외(2002:144-145)(필자 일부 변경)

호칭어에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동시에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 표현의 시작이 호칭어라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나이, 신분, 계층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직적인 상하 관계와 수평적인 친소 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호칭어가 영화 대사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을 자막으로 번역할 때도 호칭어에 함축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의 영화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와 그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대조・분석하여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호칭어의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에서 호칭어를 추출하는 기준은 ①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가 복수로 나타날 경우에는 자막에서 다르게 표현된 경우에만 복수로 추출한다. ②대명사 유형에서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인 2 인칭 대명사와 화자에 의해 말해지는 대상을 화자가 가리키는 지칭어인 1 인칭과 3 인칭 대명사를 포함시킨다. 그 이유는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인칭대명사가 한국어 자막에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3.1. 대명사 유형

대명사형 호칭어란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쓰이는 2 인칭 대명사를 말한다. 한일 양국어의 2 인칭 대명사는 청자가 윗사람일 경우에는 호칭어로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료 안의 **굵은 글씨**는 일본어 대사와 그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표시한 것이다.

【분석 자료 1】 1 인칭 대명사의 분석 자료[8]

No	S	ST	TT
①	보쿠[9]	それ、秘密を知った 僕への嫌がらせ？ …… そっか… 僕ら仲良くしてるのか… …… 僕は誰とも関わらないことで 自分の領域を守ってきたから。	비밀을 알아버렸다고 날 괴롭히는 거야? …… 사이좋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건가 …… 남과 관계를 안 맺는 걸로 내 영역을 지켜왔거든
②	사쿠라	じゃあ私、お風呂はいろ～と。 お風呂お風呂～。 …… うちのクラスでだれが一番 かわいいと思う？ …… ひなが一番として あたしは何番目？ …… 君がしてきた選択と、私がしてきた 選択が私たちを合わせたの。	그럼 난 목욕할래 목욕! 목욕! ……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쁜 거 같아? …… 히나가 제일 예쁘다면 나는 몇 번째야? …… 네가 해 온 선택과 내가 해 온 선택이 우릴 만나게 한 거야.
③	쿄코	桜良がいなかったら 私は一人だった。	사쿠라가 없었으면 난 외톨이였을 거야

【분석 결과 1】

영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을 'I' 라고 하고 상대방을 'you'라고 칭한다. 한국어 역시 말하는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로 자신을 가리키는 1 인칭 대명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하나로 매우 제한적이다. 자막에 나타나는 '우리'는 '나'의 복수형이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윤옥(2022:42-4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8] S 는 발화자(Speaker)를, ST 는 일본어 대사(Source Text)를, TT 는 한국어 자막(Target Text)을 나타낸다.

[9] 본고의 분석 자료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서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마지막 장면에서야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남성어로서의 1 인칭 대명사인 보쿠(僕[boku])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남주인공인 발화자를 '보쿠'라 하였다. 1 인칭 대명사 보쿠(僕[boku])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윤옥(2022:41-45)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어의 1 인칭 대명사는 성별은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용법이 달라진다. 동일한 문법의 1 인칭을 나타내면서 다른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인물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①에서 알 수 있듯이 남주인공 '보쿠'는 자신을 가리키는 지칭사로 'boku(僕)'와 'jibun(自分)'을 사용했다. 'boku(僕)'는 상대방과 친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남자들이 쓰는 표현이다. 'jibun(自分)' 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되지만 극중에서 남주인공은 성격이 겸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어 자막에 적용된 '나'로는 일본어 특유의 이미지가 희석되긴 하지만 언어적 특성상의 한계로 간주된다.

②와 ③의 두 인물은 극중의 여주인공 '사쿠라'와 그의 절친 '료코'로 여학생이다. 이들이 사용한 지칭사도 'watashi(私)' 'uchi(うち)' 'atashi(あたし)' 'watashidachi(私たち)' 등으로 다양하다. 물론 'watashidachi(私たち)'는 'watashi(私)'의 복수형이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atashi(あたし)'이다. 이 표현은 여성어로서의 1 인칭 대명사로 'watashi(私)'보다 소탈한 말로 정의된다(ibid:43). 또한 'atashi(あたし)'는 주로 관동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등, 호칭어에 함축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①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특성상의 이유로 자막에서는 차이를 두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석 자료 2】 2 인칭 대명사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보쿠	君さ、そういう冗談言ってさ、 僕が困ると思わないわけ？	너, 그런 얘길 농담으로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②	사쿠라	君、先生になりなよ。 だって教えるのうまいし。	너, 나중에 선생님 해라 가르치는 소질이 있어
③	미야타	よう、志賀。あのさ、お前なん で上履き捨ててんの。	야, 시가, 너 실내화 왜 갖다버렸냐?
④	사쿠라 어머니	あなただったのね… 自分が死んだら、この日記をあ る人に渡してほしい	너였구나 자기가 죽으면 이 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고 했어
⑤	료코	あっ… あんた、なんでいるのよ。	Ø 너 왜 여기 있어?

【분석 결과 2】

鈴木孝夫(2021:132)는 상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의 상대를 가리키는 말도 언제나 'anata(あなた)' 'kimi(きみ)'와 같은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현재의 일본어에는 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anata-sama(あなたさま)' 등은 단순한 윗사람이라기보다 그 사람과 친한 교제가 없는 타인을 존중하고 멀리하려는 성격이 짙은 말이며, 자신의 윗사람이라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고 지적하였다.

위의 ①-④는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가 아닌 상대를 가리키는 지칭어로서 2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도 'kimi(きみ)' 'omae(お前)' 'anata(あなた)'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어의 2 인칭 대명사는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10] 일반적으로 '너, 자네, 당신'이다. '너'는 청자가 친구이거나 이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 인칭 대명사이고, '자네'는 청자가 친구이거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2 인칭 대명사이다. 그리고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 인칭 대명사로 하오[11]할 자리에 사용된다.

①, ②, ③, ⑤의 청자는 모두 친구이므로 '너'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지만, ④의 경우는 딸의 남자친구를 대우하여 이르는 말인 '자네'를 선택해 친구 관계와 차이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위의 분석 자료에서 유일하게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가 ⑤이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anata(あなた)'가 아닌 'anta(あんた)'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a(あんた)'는 'anata(あなた)보다 덜 높여 부르는 말로 아주 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지역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는 'anata(あなた)'보다 '거친 말투'로 취급되고, 서쪽 지역에서는 '친절한 호칭'으로 취급된다. 쿄코가 사용한 'anta(あんた)'에서는 '덜 높여 부르는 말'과 '거친 말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anta(あんた)' 라는 호칭어에서 쿄코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보쿠'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막에서는 언어적 특성상의 한계로 호칭어로 알 수 있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관객들은 화자가 청자에게 주는 언어 정보 (억양, 리듬, 포즈, 성질과 같은 언어적 측면)로 쿄코의 보쿠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0] 박정운(2005:214-215)에 의하면, Hwang(1975)은 '너, 자네, 당신'을, Pae(1974)와 Cho(1982)는 '너, 자네, 당신, 그대, 자기, 임자, 댁, 어른, 어르신'을, 박정운(1997)은 '너, 자네, 자기, 당신'을 각각 2 인칭 대명사로 인정하고 있다.

[11] 주로 친밀한 관계의 윗어른에게 존대를 할 때 쓰는 말투를 말한다.

【분석 자료 3】 3 인칭 대명사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보쿠	彼女、しつこい人間は嫌いらしいよ。前の彼氏がそうだったって。 …… 彼女は以前から世間を騒がせていた通り魔事件に巻き込まれていた	걔는 치근덕거리는 인간 싫어한대 전 남친이 그랬다지 …… 사쿠라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묻지마 살인'의 희생이 되었지만
②	사쿠라	もっと彼のことを知りたい。 彼の顔を見たらほっとして。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 애 얼굴을 보니 마음이 풀리고
③	미야타	あいつもずーっと騒ぎっぱなしだし。 恋人取られたみたいにさ。	쿄코도 뾰루퉁하고 말야 애인 빼앗긴 사람처럼
④	쿄코	は？！何言ってんの？博多？ あいつと？	뭐라고? 뭔 소리야? 하카타? 그놈하고?

【분석 결과 3】

3 인칭 대명사로는 'kanojo(彼女), kareshi(彼氏), kare(彼), aitsu(あいつ)'가 출현되었다. 'kanojo(彼女), kare(彼)'의 자막으로는 '걔, 그 아이, 그애'가 적용되었다. '걔·그애'는 '그 아이'의 준말이므로 같은 표현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또래의 반 친구라는 관계를 감안하면 '그녀'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이라 하겠다. 'kareshi(彼氏)'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의 준말이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를 나타내는 '남친'이라는 단어를 적용시켜 극중의 이미지를 살렸다고 하겠다. 'aitsu(あいつ)'에 대해서는 '쿄코'라는 고유명사와 '그 아이'를 비속하게 이르는 3 인칭 대명사 '그놈'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 남학생 미야타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반 친구 여학생을 이르는 장면에서는 쿄코의 이름을 선택했고, 같은 반 친구지만 '보쿠'에 대한 쿄코의 개인적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비속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3.2. 이름 유형

일본에서는 성(姓)이 이름(名)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호칭에서는 '성-san(さん)'을 사용한다. 이 '-san(さん)'이 한국어 매체로 들어올 때 '-씨'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른 번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물론 '-san(さん)'과 '-씨'의 기능이 비슷한 영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의미는 많이 다르다. '-san(さん)'은 한국어의 '-씨'보다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

다르다. 두 호칭 모두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용도가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 한국어의 '-씨'는 존경보다는 거리감에 무게가 실리고, 일본어의 '-san(さん)'은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거리감보다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성+씨'로 부르는 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실례가 되는 용법이다.

한일 호칭어 접미사 '-san(さん)'과 '-씨' 그리고 '-sama(さま)'와 '-님'의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san(さん)/-씨' 와 '-sama(さま)/-님'의 기능

기능	-san(さん)	-씨	-sama(さま)	-님
상대방을 높인다	○	○	○	○
상대방과 동등하다	○	○	φ	φ
상대방을 낮춘다	φ	○	φ	φ
상대방을 조금 높인다	φ	φ	φ	○

φ:기능이 없음을 나타낸다.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는 호칭어로 '이름'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름'에 호격조사 '-아/야'나 접미사 '-씨, -군/양' 등을 붙여 사용한다. 일본어에서 일반적인 '성-님(苗字＋様)'의 유형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성명-님(氏名＋様)'의 유형도 편지와 같은 문어체에서 사용될 뿐, 일상의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 자료 4】 이름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사쿠라	いつかきっと説明する。 だから納得できなくても今は許してほしいの。お願い、恭子。	언젠가는 다 설명할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해 줘 부탁이야, 쿄코
②	미야타	よう、志賀！ お前山内桜良と付き合ってんの？	야, 시가! 너 사쿠라하고 사귀냐?
③	쿄코	桜良、今どこにいんのよ。	사쿠라, 너 지금 어디야?
④	반장	あれ、山内さんは？ プリント渡そうと思って。 ……	사쿠라는 어딨어? 프린트한 거 주려고 왔는데 ……

		桜良、 どうしてそんな奴…。	사쿠라 너 왜 저런 놈을 …
⑤	여성	恭子ちゃん、もうすぐ結婚式でしょ。	쿄코, 결혼식 얼마 안 남았지?
⑥	학생	だって、桜良さんが悲しむよ。	그만두시면 사쿠라 씨가 슬퍼할 거예요.
⑦	뉴스	桐岡市の歩道で市内の高校生山内桜良さんが何者かに包丁のような刃物で刺されて死亡しました。 血を流して倒れている 山内さんを発見。	키리오카시 거리에서 여고생 야마우치 사쿠라 양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야마우치 양을 발견
⑧	편지	恭子、これは私の遺書です。 …… 拝啓 志賀春樹くん。ようやくこれを見つけましたね。遅い遅い！	쿄코, 이건 내 유서란다. …… Ø 시가 하루키 님, 드디어 편지를 발견했구나 늦어, 너무 늦어!

【분석 결과 4】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어의 호칭어에서 '이름'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름'에 호격조사 '-아/야'나 접미사 '-씨, -군/양' 등을 붙여 사용한다. 그러나 ①의 '恭子 vs 쿄코'와 ③-④ '桜良 vs 사쿠라'의 자막에서는 이름이 단독으로 적용되어 있다. 조사나 접미사를 붙이지 않고 번역한 자막은 원작의 간섭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인들 사이에 상대방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친한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관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번역이라 하겠다. ②의 '志賀 vs 시가'는 원작의 간섭이라기 보다는 원작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극중에서는 의도적으로 남주인공 '보쿠'의 이름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없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성'이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도 하지만, 특정의 다섯 성씨(김, 이, 박, 최, 정)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10 만 이상의 성씨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에서 '성'으로 호칭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과 같은 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②의 '山内桜良 vs 사쿠라'는 호칭어로 알 수 있는 둘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반 친구를 풀 네임으로 부르거나 지칭할 때는 친한 사이가 아님을

엿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자막에서는 이름만을 적용해 '같은 반 친구라도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름만으로 부르지 않는 일본의 문화를 관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④의 '山内さん vs 사쿠라'에서는 '-san (さん)'을 사용함으로써 사쿠라에 대한 반장의 개인적 심리, 즉 존중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살리는 동시에 호칭어에 함축되어 있는 요소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막 표현에 차이를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⑤의 '恭子ちゃん vs 쿄코'는 호칭어에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번역이라 하겠다. 등장인물의 친분 관계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호격조사나 접미사를 붙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⑥의 '桜良さん vs 사쿠라 씨'는 일본어의 '-san (さん)'이 한국어 매체로 들어올 때 '-씨'로 번역되는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san (さん)'과 '-씨'의 기능이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존칭에서 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반 친구였던 윗사람을 칭하는 장면에서는 '-님'이라는 경칭의 접미사를 붙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⑦의 뉴스에 대한 자막에서는 일대일 대응으로 한일 양국어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진 경우라 하겠다.

⑧의 '恭子 vs 쿄코'와 '志賀春樹くん vs 시가 하루키 님'은 편지 서두에 사용된 표현이다. 전자의 경우는 격조사 '에게'를 붙여 '쿄코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적절한 한국어의 경칭이 적용되었다고 본다.

3.2. 직업 유형

한국에서 직함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존칭의 접미사 '-님'이 직함에 붙어 호칭어를 형성한다. 박정운(왕한석 외 2005:79)은 '직함-님'은 청자를 높이는 호칭형으로 전형적으로 윗사람에게만 사용하며, 동급청자에게 사용될 때도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에,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면 청자를 대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일본어 'sensei(先生)'와 한국어 '선생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9)-(10)과 같다.

(9) せん・せい【先生】
②学徳のすぐれた人。自分が師事する人。また、その人に対する敬称。
(학덕이 뛰어난 사람. 자기가 사사하는 사람. 또 그 사람에 대한 경칭.)
—『広辞苑』 (밑줄 필자)

(10) 선생님

1. '선생'을 높여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일본어 'sensei(先生)'에는 한국어의 높임 접미사 '-님'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자료 5】 직함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교사	志賀先生、ちょっといいですか？ …… 手伝いの図書委員もいますから大丈夫ですよ、ね？	시가 선생님! 잠시만요 …… 도서위원 학생들도 도울 거니 괜찮아요
②	반장	もしなんかあったら言ってよ。 これでも一応クラス委員長だし。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이래 봬도 내가 반장이잖아
③	학생	先生、おはようございます。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석 결과 5】

①과 ③의 '先生 vs 선생님'은 (9)-(10)의 사전적 정의에 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성'만으로 호칭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성+직함'은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같다. 그리고 '図書委員 vs 도서위원'은 원작의 간섭을 피하지 못한 번역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 고등학교의 동아리는 크게 일반 동아리와 상설 동아리, 그리고 교과 동아리로 나누어진다. 동아리의 대부분은 이름만 다른 자습부로 통일된 모습을 보였으나 수시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며 폐부의 위험이 없는 방송부, 도서부, 학생부가 대표적인 상설 동아리이고, 그 외에도 학교에 따라 밴드부나 신문부 등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서위원'이 아닌 '도서부원'이 적절한 자막이 될 것이다.

②의 'クラス委員長 vs 반장'은 적절한 자막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관객들은 한국과 일본의 학교 용어의 차이를 서브컬처라는 매체를 통해 배우게 된다.

3.3. 친족 유형

陳京愛(2016:143)는 '친족 유형이란, 한일 양국 모두 민법에 의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호칭으로 친족 관계의 친족을 '친족',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하는 친족 명칭을 '친족화', 친족이거나 아니거나 모두 자녀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은 '종자명'이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본고의 분석 자료에 출현한 친족 호칭어는 친족화에 해당한다.

【분석 자료 6】 친족 호칭어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쿄코	桜良、今どこにいんのよ。私んちに泊まるって嘘ついたでしょ。 **お母さん**から電話があったんだからね。	사쿠라,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집에서 잔다고 뻥쳤지? **네 엄마** 전화 왔었어
②	보쿠	**お母さん**、お門間違いなことはわかっています。でも…	**어머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만…

【분석 결과 6】

본고의 분석 자료에는 친족 호칭어는 두 번 출현하였다. ①은 친구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고, ②는 친구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어이다. 여기서 'お母さん'을 '엄마'와 '어머니'로 자막에 차이를 둔 것은 등장인물 간의 친소관계를 고려한 결과라고 하겠다. 사쿠라의 절친인 쿄코의 표현에 '엄마'를 선택한 것은 '어머니'보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 '엄마'이기 때문이다.

3.4. 통칭 유형

<표 2> 호칭어 유형 분류에서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호칭을 통칭 유형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분석 자료 7】 통칭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사쿠라	そう思ってるからそうなるんだよ。**地味なクラスメート君！** …… **そっち**こそやりたいことしなくていいの？ ……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따분한 클래스메이트'** …… **너**야말로 하고 싶은 일 안 해도 돼? ……

		ねぇ、**仲良し君**、洗顔クリームとって！ …… **そっち**のミスだからって予約してた部屋より断然いい部屋用意して	야, **'친한 사이 소년!'** 세안제 좀 갖다 줘 …… **자기들** 실수라고 예약한 방보다 훨씬 좋은 방으로 준비해 준대
②	보쿠	え？ **そっち**こそどうなの？	뭐? **너**는 어떤데?
③	쿄코	ちょっと、**そこの疫病神**！ 桜良、盲腸で入院だって。 …… なんでこんなタイミングに… もう、**バカ**	야, 너! **재수 없는 놈**! 사쿠라는 맹장으로 입원했대 …… 왜 이런 타이밍에… **바보**
④	반장	桜良、 どうして**そんな奴**…	사쿠라 너 왜 **저런 놈**을…

【분석 결과 7】

①의 '地味なクラスメート君'과 '仲良し君'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 사쿠라는 남주인공 '보쿠'에게 '또래나 아랫사람의 성이나 이름에 붙여 친근감이나 가벼운 경의를 표하는 접미사 '-kun(君)'을 붙여 부른다. 한국어 자막 또한 '따분한 친구야'라든가 '친한 친구야'로 번역할 수 있었겠지만 원작의 의도와 내막을 파악한 번역가의 선택 또는 재량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전개는 남주인공 '보쿠'의 실명을 끝까지 감추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스토리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12].

①에서 사쿠라가 사용한 'そっち vs 너'와 'そっち vs 자기들', 그리고 ②에서 보쿠가 사용한 'そっち vs 너'를 살펴보면 일본어 대사에서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데 비해 한국어 자막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적용시킨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일본어 호칭어의 사회・문화적 요소는 '옛부터 일본인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한국어 자막에서는 애매한(ambiguous) 표현을 적용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과 ④에서 사용한 'そこの疫病神 vs 재수 없는 놈' 'バカ vs 바보' 'そんな奴 vs 저런 놈'은 비칭을 사용한 자막이다. 陳京愛(2006:146)에 의하면 '통칭 유형의

[12] 주인공의 이름이 스토리의 열쇠가 된다는 것은, 두 주인공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이다. 남주인공 '보쿠'의 실제 이름 Haruki(春樹)를 풀이하면 '봄의 나무'가 되는데, 여주인공 Sakura(桜(良))는 일본의 봄을 상징하는 '벚나무'이기 때문이다.

특징으로 비칭의 사용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윤옥(2020:37)에서는 '자막 번역에서 적절하게 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객들에게 유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3.5. 회피 유형

<표 2> 호칭어의 유형 분류에서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통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호칭을 회피 유형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안면은 있지만 이름을 모를 때, 또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호칭어 선택을 망설이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호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회피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 자료 8】회피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쿄코	ねえ、今誰に手振ってたの？ …… ちょっと、そこの疫病神！ 桜良、盲腸で入院だって。	Ø 지금 누구한테 손 흔들었어? …… 야, 너 ! 재수없는 놈! 사쿠라는 맹장으로 입원했대
②	사쿠라	ほら、最近このあたりで通り魔事件もあるし。 …… どうせいつかは皆死ぬんだし。 ほら、天国で会おうよ！ …… あのさ、ちょっと手違いがあったみたいでさ、 …… ねぇ、仲良し君、洗顔クリームとって！ ねぇ、今から病院抜け出して、旅行に行かない？	Ø 요즘 '묻지마 폭행'도 많고 말야 …… 어차피 언젠가는 다들 죽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 있잖아, 약간 실수가 있었나 봐 …… 야, '친한 사이 소년'! 세안제 좀 갖다 줘 Ø 지금 병원 도망쳐서 여행 갈까?
③	보쿠	ねえわざとやってない？ ……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냐? ……

		あの…お話があるんです。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Ø는 자막이 생략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8】

①의 'ねえ'와 'ちょっと'는 '상대를 불러 주의를 기울이게 할 때나 가볍게 부를 때 쓰는 말'이다[13]. 'ねえ'에 대한 자막은 생략되었지만, 'ちょっと'에 적용된 자막은 '보쿠'에 대한 비호감적인 쿄코의 심리를 살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의 'ほら'는 '갑자기 주의를 재촉할 때 쓰는 말'인데 자막에서는 생략을 하거나 문맥에 맞추어 '우리'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 'あのさ'는 '친한 상대에게 말을 걸 때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말의 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말의 틈을 만들고 싶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적용된 자막도 '있잖아'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ねぇ'에 대해서는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명하는 '야'를 선택한 것은 사쿠라의 어색하고 쑥스러운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된다.

③의 'ねえ vs 너'와 'あの vs 어머니'는 '통칭 유형'에서 살펴본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일본어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어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4. 나오기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인 지칭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같은 개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학적 범주도 호격(vocative case)인 점에서 일치하였다. 또한 호칭어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선택에도 많은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칭어는 대인 관계의 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언어 표현인 동시에 어떤 호칭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친밀함과 소원함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영상작품을 감상할 때 등장인물 간의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파악하려면 호칭어와 그 호칭어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호칭어에는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으로 인해 작품에

[13] 이윤옥 (2021) 참조

대한 해석을 그르치게 하거나 관객들에게 작품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와 그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호칭어의 정의와 기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호칭어 유형의 분류기준에 준하여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통칭, 회피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일본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서 ‘대명사 유형’에서는 언어적 특성상의 한계로 인해 일본어 특유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다. ‘이름 유형’에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작의 의도로 인해 ‘성’만으로 호칭할 수 없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막을 원작의 간섭으로 분석하였다. ‘직업 유형’에서는 한일 양국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학교 용어의 차이를 서브컬처라는 매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친족 유형’에서는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어가 출현했는데, 등장인물 간의 친소관계를 고려한 자막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칭 유형’에서 특이한 점은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지시대명사가 한국어 자막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적용시킨 것과 비칭을 사용한 것이었다. ‘회피 유형’에서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었으며 한일 양국어의 특성도 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윤옥(2020, 2021, 2022)의 시리즈 연구의 마지막임을 밝히는 동시에 분석 대상이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한정된 텍스트라는 제한성이 있었다. 그러나 영화 대사와 그에 적용된 자막을 대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문화 요소’ ‘필러’ ‘역할어’ ‘호칭어’에 대해 개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鈴木孝夫（2021）『ことばと文化』岩波新書。

松本克己（2011）『世界言語の人称代名詞とその系薄―人類言語史 5 万年の足跡―』三省堂。

왕한석 외（2005）『한국 사회와 호칭어』역락.

이익섭（2016）『국어학 개설』학연사.

笹井香（2015）「呼び掛け文」関西学院大学リポジトリ『日本文藝研究』第66巻2 号（pp. 3-29）。

杉井潤子・林逸歩（2018）「京都市立小学校における「さんさん付け」呼称の導入実態　京都教育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第18 号（pp. 223-232）。

宋有宰（2003）「日本語と韓国語の呼称表現の対照研究」金沢大学大学院社会環境科学研究科博士論文要旨（pp. 16-22）。

橘広司（2010）「日本人における「苗字の重視」と英語教科書に見る呼称の問題―「初対面」の場を中心に―」『言語教育研究』創刊号（pp. 67-78）。

東出朋（2019）「呼びかけ語をめぐる諸問題の検討と定義の提案」『日本文化學報』第 82 輯（pp. 103-121）。

李紫娟（2012）「一語文としての呼びかけ語」岡山大学大学院社会研究科『紀要』第33 号（pp. 185-204）。

林炫情（2003）「非親族への呼称使用に関する日韓対称研究」『社会言語科学』第 5 巻第 2 号（pp. 20-32）。

陳京愛（2016）「한국과 일본의 소설 및 그 번역에서 나나난 呼稱 비교 연구」『日本語教育研究』第34輯（pp. 131-150）.

김홍매・김광수（2022）「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본문 대화문을 중심으로−」『현대사회와 다문화』제 12 권 1 호（pp. 143-167）.

박정운（1997）「한국어 호칭어 체계」『사회언어학』제 5 권 2 호 한국사회언어학회（pp. 507-521）.

박철우（2020）「한국어 호칭어 체계와 호칭의 전략적 사용에 대하여」『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학 연구』2020 년 여름학술대회 발표집 （pp. 99-120）.

손춘섭（2010）「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한국어 의미학』33（pp. 95-129）.

윤미선（2021）「한국 영화 영어 더빙본의 호칭어 번역 연구」『국어어문』제 91 집（pp. 7-28）.

이윤옥（2020）「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한국어 자막에 나타나는 이문화 요소」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5（pp. 19-41）.

――― （2021）「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필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6（pp. 35-57）.

――― （2022）「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역할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7（pp. 33-49）.

新村出（1998）『広辞苑』第 5 版、岩波書店。

국어국립연구원（1999）『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한국학중앙연구원（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웅진출판.